

호랑이 해 '새해 마케팅' 불 붙었다

이마트 신년 '결심족' 용품
운동복·매트 등 매출 68% 늘어
광주은행 이름에 '호'字 고객
우대금리 '호락호락 적금' 출시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범 내려온다 얼리버드' 숙박상품

신축년(辛丑年)이 가고 임인년(壬寅年)이 오고 있다.

'검은 호랑이의 해'를 앞두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맞이하려는 소비사 심리를 겨냥한 판촉이 불 붙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위축된 생활을 일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결심족'이 늘어나고 있다.

14일 광주 3개 이마트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이들 점포의 피트니스 용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6% 급증했다.

러닝머신과 실내 자전거 등 헬스기구 뿐만 아니라 실내 운동을 위한 운동복, 매트, 아령 등을 찾은 고객이 늘었다. 이는 자기계발을 위한 '아침형 인간'으로 거듭나자는 '미라클 모닝' 문화가 유행한 영향도 받았다.

같은 기간 실내 환경을 산뜻하게 바꾸기 위한 청소용품 매출도 9.6% 증가했다.

새해 마케팅에는 금융권도 가세했다.

광주은행은 올해 소파해에 맞춘 '부자되소적금'에 이어 내년 범띠해를 맞아 '호락호락(虎樂)적금'을 이날 내놓았다.

새해 장맛돈을 마련하려는 고객의 바람을 반영해 호랑이띠 해에 태어났거나 이름에 '호'가 들어간 우대금리를 준다.

우대금리를 받는 방법은 다양하다. 호랑이띠 해에 태어났다면 가입 때 0.3%포인트를 받고, 추천 코드를 공유해 등록한 연결계좌 수에 따라 최고 0.5%포인트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만기해지계좌(0.1%포인트)와 신규 또는 만기 가입(0.3%포인트)도 우대금리 제공 조건이다.

광주은행은 내년 6월30일까지 별도 우대금리 행사를 벌여 최고 0.4%포인트 추가 금리를 제공한다. 이름에 '호'가 들어가면 가입 때 0.2%포인트를,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비대면·무통장 신규 가입하면 0.2%포인트를 또 받을 수 있다.

이 적금상품은 1년제 또는 2년제로, 월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정액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출시일 기준으로 정액적립식 2년제 기본금리 연 1.4%, 자유적립식 2년제 연 1.2%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최고 연 1.2%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송중옥 은행장은 이날 '호락호락(虎樂)적금' 1호 가입자로 나섰다.

광주은행은 저금리 입출금 계좌의 1만원 미만 자투리 금액을 매일 자동이체하는 '저금통 적금'도 올 9월 출시하며 '짚테크' 경향을 반영했다.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은 연말연시 호랑이 캐릭터가 담긴 막걸리를 즐기는 '범 내려온다 얼리버드' 숙박 상품을 내놓았다.

예약은 오는 19일까지 받으며 이달 31일부터 내년 2월6일까지 투숙할 수 있다. 이 상품을 예약하면 '호랑이배꼽막걸리'와 전용잔 등 캐릭터 상품을 제공한다.

홈플러스는 설 선물 사전예약을 시작하면서 '호랑이띠 스페셜 와인 4종'을 자체적으로 내놓았다. 각 2022병식 한정 판매하며 와인마다 고유 숫자를 새겼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송중옥(가운데) 은행장이 14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호랑이띠 해를 맞아 출시한 '호락호락 적금' 1호 가입자로 나서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 '광주 수출의 탑 및 유공자 포상 전수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제공>

광주 18개 기업 무역의 날 수출의 탑 수상

16명 대통령 표창 등 유공포상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광주시는 14일 제58회 무역의 날을 기념해 '광주 수출의 탑 및 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열고 지역 우수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의탑 시상과 무역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올해 광주에서는 총 18개 수출기업이 수출탑을 수상했으며, 수출진흥에 공로를 인정받은 수출기업 및 수출 유관기관 임직원 16명이 유공포상을 받았다.

수상내역을 보면 우선 수출탑은 한국알프스(주)가 '6억불탑'을 수상했고, ㈜에이치인터내셔널과 성일인노텍이 각각 5000만불탑과 2000만불탑을 받았다.

이밖에 500만불탑 ▲(주)에스엠부레 ▲㈜골드라인, 300만불탑 ▲(주)달마전자 ▲(주)부일에

스티 ▲(주)아이시스 ▲(주)엘텍 ▲(주)탑택코리아 ▲동진씨앤씨 ▲(주)선명 ▲(주)천일, 100만불탑 ▲(주)에스엔에스케미컬 ▲(주)인아오토메이션 ▲(주)김즈메드 ▲(주)파워텍 ▲(주)운창 등이다.

유공포상은 ㈜대창 이길상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주)터보코리아 박창훈 대표와 (주)호원 최준혁 상무, 창성정밀(주) 정종호 대표, 한국알프스(주) 김규남 상무, 한국알프스(주) 임철섭 차장 등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16명이 유공포상을 받았다.

이관재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장은 "무역의 날 기념 행사는 지역 무역인들이 한 해 일궈낸 소중한 성과를 인정받는 자리"라며 "이번 전수식이 광주 무역인들의 수상을 축하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세관 RCEP 발효 대비 수출기업 지원

광주본부세관은 내년 2월1일 발효 예정인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활용을 돕기 위해 'RCEP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세계 최대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에 참여하는 무역협정이다.

RCEP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른 FTA 원산지 인증 수출자만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도록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본부세관은 RCEP 발효 즉시 지역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RCEP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특례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RCEP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RCEP 활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RCEP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와 간담회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RCEP 발효 전 인증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 심사해 발효 즉시 인증수출자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내년 1월28일까지 가(假)인증 신청제도도 시행기로 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지역 수출기업들이 RCEP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해당 15개국으로 수출하는 관내 수출기업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RCEP 활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광주본부세관 'RCEP 활용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987.95 (-13.71)
↓ 코스닥	1002.81 (-3.15)
↓ 금리(국고채 3년)	1.784 (-0.006)
↑ 환율(USD)	1182.60 (+1.80)

전남 대중교통 없는 마을 543곳...5년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읍·면 있는 14개 시·도 중 최다

전남지역에 걸어서 15분 안에 이용가능한 대중교통이 없는 읍·면 지역 마을이 543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보다 385곳이나 늘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기준 전국 마을(읍·면 지역에 설치된 행정리) 3만7563개 가운데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행정리는 94.1%에 해당하는 3만5339개로 집계됐다.

나머지 2224개 마을(5.9%)은 걸어서 15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기차, 여객선 등이 없었다.

전국 대중교통 미운행 마을 비중은 5년 전인 2015년 2.4%(879개)에서 5.9%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전남에서는 전체 6785개 마을 가운데 8.0%에 달하는 543곳에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고 있었다. 대중교통 미운행 마을 비중은 5년 전 2.3%(158개)에서 8.0%로, 5.7%포인트나 증가했다.

전남 대중교통 미운행 마을은 읍·면 지역이 있는 1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전남 읍·면 지역 마을은 5년 전보다 17개(6768개→6785개) 늘었는데 대중교통 미운행 마을은 385개(158개→543개)나 늘었다.

목포를 제외한 전남 21개 시·군 가운데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마을 비중은 무안(19.7%(417개 중 82개))로 가장 높았다. 미운행 비중이 10%를 넘는 시·군은 진도 17.4%(242개 중 42개), 곡성 15.1%(271개 중 41개), 강진 12.3%(293개 중 36개) 등 4곳이었다.

미운행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와 인접한

영광(2.1%)과 고흥(3.5%), 장성(3.8%) 등이 있었다.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마을 개수 역시 무안(82개)이 첫 번째를 차지했다. 무안에 이어 해남(51개), 진도(42개), 곡성(41개) 등 순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해 대중교통이 없는 마을은 완도를 제외하고 20개 시·군 모두에서 늘었다.

무안이 15개에서 82개로, 67개 늘었다. 진도지역 증가분이 39개(3개→42개)로 뒤를 이었고, 해남(32개↑), 나주(31개↑), 곡성(29개↑), 강진(27개↑), 여수·담양(각 17개↑) 순으로 많았다.

미운행 마을 비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지역은 16.2%포인트(1.2%→17.4%) 증가한 진도군이였다. 증가분은 무안(16.1%포인트), 곡성(10.1%포인트), 강진(9.2%포인트), 여수(8.0%포인트) 순으로 높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